

데스크 시각



윤 영 기 문화미디어부장

서울에서 애니메이션 창업의 꿈을 키우던 박일호(43) 씨. 그의 삶은 고단했다. 아이디어를 들고 유망회사를 찾았지만 모두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절망 끝에 섰을 때 희미하지만 한줄기 빛이 보였다. 지난 2007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억 원을 걸고 기획창작 스튜디오 지원 대상자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공모에 뽑힌 그는 광주로 실패를 옮겨 '마로 스튜디오'(MARO STUDIO)를 차렸다. 박 대표가 '문화산업 불모지' 광주에서 씨 뿌리고 싹을 틔운 작품이 '우당탕탕 아이쿠'다. 국내 최초 어린이 안전교육 콘텐츠 1호인 '우당탕탕 아이쿠'는 '애니메이션 제작자 사관학교'로 불리는 EBS 전파도 됐다. 공모작품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해당 회사 PD의 눈에 들었기 때문이다.

'아이쿠'와 '두다' 야구장서 보고 싶다

어른들에게 낯선 캐릭터지만 아이쿠는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아이쿠 왕자님'으로 불리며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다. 후속작 '으랏차차 아이쿠'가 제작돼, 다시 EBS에서 방송될 정도다. 경찰의 어린이 안전 캠페인과 홍보 캐릭터로 활용되기도 했다. 어른들의 '조심해' '하지마' 식 명령조에서 벗어나 '다소 덜떨어진' 주인공 아이쿠를 내세워 어린이들을 까르르 웃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교통·생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특징이다.

'메이드 인 광주' 캐릭터

마로스튜디오는 최근 중국 아이치이샤(社)와 협력 체계를 구축, 현지 인터넷 채널을 통해 '으랏차차 아이쿠'를 내보내고 있다. 아이치이샤는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 내 온라인 전송권을 사들여 대박을 터뜨린 회사다. 지난 2010년 광주에 동지름 튜 최병선(44) 아이스크림(EYESCREAM) 대표도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핫'(hot)한 인물이다. 대표작 '두다다쿵'도 시즌2까지 제작돼 EBS에서 어린이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 작품 줄거리는 바벌세상을 난생 처음 경험하는 여섯 살 두더지 '두다'가 꼬마 숙녀 '다다'와 좌충우돌 자연을 탐험하고 체험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유아교

육 애니메이션이다. 최 대표는 지난 2015년 중국 대표적 IP TV인 텐센트(Tencent) 등 채널에서 두다다쿵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정도문화발전유한공사와 두다다쿵 키즈카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교무보를 확보했다. 다음 주에는 중국 청도에 두다다쿵 키즈카페 1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카페 규모는 350평가량으로 향후 5년 동안 중국 전역에 모두 50곳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기업을 포함한 애니메이션 1세대 업체의 노력으로 광주는 문화콘텐츠 산업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었다. 최근엔 문화콘텐츠 산업 협회가 모여 '광주창작콘텐츠 산업협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 협회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사단법인 전환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광주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말하면 믿는 단계까지는 왔다"고 자랑한다.

KIA 구단도 적극 관심을

이처럼 굳이 애니메이션에 대해 정황하게 언급한 것은 프로야구단 KIA 타이거즈가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다.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어

린이 '팬심'을 모으고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연예인의 운명과 같다. 유명세를 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수익 창출 기회도 무한하게 열린다. KIA 구단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하다. 타이거즈라는 움직이는 전광판에 광주 문화산업 아이콘이 등장하면 날개를 단 격이 될 것이다. 이미 국내 구단에서는 인기 캐릭터를 유니폼에 새겨 넣어 대박을 터뜨린 사례가 적지 않다. 롯데 자이언츠는 일본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 유니폼을 3차례에 걸쳐 제작했는데, 모두 판매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SK 와이번츠는 지난 2015년 포켓몬 코리아와 공동 마케팅 계약을 맺고 피카츄 캐릭터를 내세워 어린이 팬들을 공략하고 있다. NC 다이노스는 '어린이 대통령' 뽀로로를 가족으로 영입한 바 있다.

기아 타이거즈 역시 멀리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 이미 어린이 팬을 확보하고 있는 광주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아가 야구만 파는 게 아니라, 광주문화를 파는 메신저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제 팬들의 사랑을 되돌릴 방법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물론 야구는 기본이다.

/penfoot@kwangju.co.kr

은펜클럽



고 성 혁 시인

인간에게 선악의 구분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칸트' 이후 아름다운 것이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 이후 아포리즘이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개과천선(改過遷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서로 상충되는 이것들. 이 말들의 함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자는 세 살이 되면 말이나 행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흥내 내곤 함으로써 습관을 만들고 그때 뿐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고치기 힘들다는 뜻이다. 개과천선은 사전적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 착하게 됨'으로 풀이되니 서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양자가 모

'세 살 버릇'의 고단함에 대해

두 삶의 단면을 꿰뚫는 명언으로서 쓰이고 있음을 보면 아이러니하다. '세 살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손발을 떨거나 손톱 물어뜯기 등의 육체적 습관은 의외로 오래 간다. 그리고 심리적 기제로서 아직도 원손잡이와 남존여비에 대한 고정관념은 뜻밖에 많다. 게으름과 매너리즘, 그리고 비판적 시각과 위선도 사람의 무의식에 깊이 뿌리를 내리므로 결국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단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를 맺는 타자에 관심이 많고 특히 그 사람의 습관과 과거의 행동에 대해 궁금해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자신을 통제하거나 지역정체를 맡아 살림살이를 쥐락펴락 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무엇이라. 지난 4월 국회의원을 뽑았다. 또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고, 2년 후에는 지방선거를 통해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를 뽑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이상한 징후를 포착해놓고도 늘 간과해왔다. 선거에 얼굴을 내미는 많은 사람이 '개과천선'을 한 것으로 치장해도 잠깐 솔자리

에서나 바람처럼 떠돌고 말 뿐이었다. 전과가 있는 것은 지분을 바꾼다고 해도 곧 드러나게 마련이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세 살 버릇'을 화려한 언어적 수사(修辭)로 분절하여 마치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음에도 몇 마디의 말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대부분 진실하다. 자신의 인간성과 진정성을 감췄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난 후 알려진 과거와 하나도 다를 게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드러운 표정과 언어로 언제나 관용할 것 같은 사람이 교만한 완벽주의자로 표면하는 걸 보면서 절망을 느낀다. 그만큼 개과천선은 이루기 어렵고 세 살 버릇은 고치기 힘들다. 개과천선은 상대의 생각과 말이 채찍보다 아프고 가시보다 고통스러울 때가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골탈태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존경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마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면 서 서서히 호로만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들,

변명을 위한 변명을 길게 늘어놓으며 진정성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그럼에도 왜 그들을 선택하는 것일까. 화려한 스펙이 쉽고 익숙하기 때문이 아닐까. 표피적인 것으로부터, 달콤한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 깊은 내면을 살펴보고 미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는 세 살 버릇이 주는 고단함이 도처에 깔려 있다. 결코 개과천선하지 않았으면서 위장하고 부풀리고 나중 오만하기까지 한 그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위선은 끝까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일상이다. 마음속의 작은 결정으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세 살 버릇이 주는 고단함'을 부단히 견뎌왔으면 좋겠다. 언제나 장삼이사와 갑남을녀가 세상의 주인이어야 한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음악 듣기 싫으면 집에나 가!”



김 광 옥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얼마 전 문화회관에서 있었던 광주시향의 창립4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중년의 관객이 학생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음악회의 풍경은 이랬다. 시향의 다른 공연과 달리 학생들은 많았고 자연스럽게 소란스러웠으며, 공연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발걸음도 매우 분주해 보였다. 심지어 악장 사이에도 학생들은 무리지어 자리를 옮기거나 공연장 밖으로 나갔다. 관객으로서 오롯이 연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하필이면 그날의 연주곡 중에는 클래식 애호가들로부터 사랑받는 베토벤의 <합창>이 있었기에 아쉬움은 더욱 진했다. 고백하건대 듣기 싫으면 집에 가라는 중년 관객의 호통은 필자에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이이다와 같았다. 오라이리언지 모르겠으나 지휘자를 비롯한 시향단원들은 매우 화가 났던 것 같

다. 당연히 기대했던 앙코르는 없었고, 예고된 프로그램만 연주한 뒤 단원들은 무대를 떠났다. 단원들을 향한 미안함은 남아 있는 관객들의 몫이 되었다. 악연고투하다시피 연주를 완료한 시향을 향해 관객들은 더욱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날의 연주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향과 그날의 관객은 결실한 피해자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학생들도 피해자라는 점이다. 학생들의 행동으로 유추하자면 음악에 대한 열망으로 스스로 입장하지 않았던 것 같고, 연주 도중에 공연장을 떠나 버리는 것은 문화시민의 태도가 아니라 하는 것도 못 배웠던 것 같다. 이쯤 되면 학교를 닦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아박하다. 입시 성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문화시민의 소양을 가르치고 학교 울타리 밖에서 실천하도록 지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역사회차원에서 모색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제도권 교육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모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관이나 시민사회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맡기는 것은 어떨까? 음악을 전공한 청년이 열 명 정도의 학생을 모집하여 음악 관련 매너도 교육할 뿐 아니라 당일

연주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설명과 정규 교과과정의 내용과도 비교해주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감상문 작성 지도까지 포함하여 문화체험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내용적 범위는 공연장 관람 실습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동 체험도 좋고 야구장 관람 실습마저도 좋다. 지역사회의 모든 공간이 학습 장소이며 민주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이 학습 내용이다. 프로그램의 형식적 측면에서 학교 교육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철저히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교 교과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하고 학생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험 학습이라는 플랫폼에 안착한다면 무난할 하더라도 1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무의미한 가정이지만 1년 전 광주에서 생활리에 개최되었던 U대회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회 인기종목 중 하나였던 리듬체조의 손연재 선수가 출전하던 날

도 시향의 음악회와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관중으로 입장한 어린 학생들은 손 연수의 메달 소식을 바랐던 모양이 없다. 손 연수의 첫 번째 연기가 묘안 후 전광판에 14위로 표시되자 메달은 어렵겠다며 자리를 떴다. 전광판의 순위가 최종 순위가 아니라는 점은 물론이고 리듬체조의 경기 방식이나 관람 포인트 등 경기를 알차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접하지 못한 채 학생들은 체육관에 입장한 것이다. 비단 리듬체조 뿐 아니라 경기 중엔 중의 아동이 금지된 테니스, 이미 국민상식이 되어버린 양궁의 관람 매너 등 다양한 층위의 정보를 청소년이 쉽게 접하고 거주지역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건 매우 드문 기회이다. 또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에 동참하여 함께 즐기면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했다면 U대회의 경제적 효과와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문화자산이 광주에 축적되었을 것이다. 관중이 많이 발전하였지만 해야 할 것도 많다.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것은 지금도 필요하다. 매일 펼쳐지는 시향의 공연은 물론이고 몇 년 뒤 펼쳐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社 說

보훈처장 '해임 결의' 의결 전 면직시켜야

광주 금남로에서의 공수부대 행진 계획과 관련 세 야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키로 했다. 발의되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는 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시가행진을 계획한 것이 발단이 됐다. 보훈처는 올해 6·25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금남로에서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퍼레이드를 추진했다가 큰 반발이 일자 일단 취소했다. 보훈처는 불과 한 달 전 5·18 36주년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해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런 터에 6·25 행사라고는 하지만 금남로에서 공수부대 퍼레이드를 계획한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5월 당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총검에 피를 흘리거나 이를 목격했던 시민들의 아픈 기억은 아랑곳없이 무력사위(?)를 하겠다니 말이 되는가. 주지사하다시피 박승춘 처장은 국론 분열의 '트러블 메이커'다. 그는 지난

2011년 2월 부임 후 줄곧 이념 성향을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보훈처로 하여금 끊임없이 구설에 휘말리도록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로 국민을 보수-진보로 갈라 세웠고, 국회에서 막무가내 식 처신으로 지난 2013년과 2015년 잇따라 해임안이 제출됐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원 윤영우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 보훈처장에 대해 국회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해임 건의안이 아닌 해임촉구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기결되더라도 바로 면직시켜야 하는 구속력은 없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심을 거스르기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 표결에 앞서 박 처장을 해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로 보인다. 그래야만 박 처장으로 인해 깊어진 국민 간 갈등을 씻고 청와대가 그를 두둔한다는 오해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안전 시각지대 미등록 캠핑장 많다니

인천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광주·전남 지역 캠핑장의 안전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1주기를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전남 야영장 93곳 가운데 등록된 곳은 74곳, 미등록 야영장은 17곳이나 됐다. 미등록 야영장 비율이 높은 데는 농지·산지·보전녹지 지역처럼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야영장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무등록 야영장 중 상당수가 소화기 등 초기 소화설비조차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남 지역 1곳은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 진입이 안 된다고 하니 만일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5명이 숨진 인천 강화도 캠핑장 사고 이후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캠핑장을 등록 시설로 전환했다.

소화기와 안전요원 배치, 전막 방염 처리 등 안전과 위생 요건을 마련했고, 이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등록 야영장은 소방점검 대상에서 빠지고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전남도는 이를 방지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고 무더위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처럼 미등록 캠핑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가족과 함께 하는 캠핑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캠핑 인구는 300만 명이 나 된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관리 시각지대에 놓인 캠핑장에서는 인제(人災)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내리거나 수시 점검을 통해 최소한 소화기 작동 여부 등 안전 관련 시설을 살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금은 퇴직했지만 A부군수는 한때 전남 지역 공무원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부군수를 두 번 지냈는데 두 곳 모두 군수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 하차해 권한대행만 4년을 앓기 때문이다. 군수가 감옥에 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살아남 가능성이 있으면 옥중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A부군수는 그럴 필요도 없었다. 두 곳 군수들 모두 일찌감치 복귀 불가능으로 판정이 나 눈치보지 않고 군수의 권한을 행사했다. 인사와 공사 절차를 마음대로 하다 보니 뒷말이 무성했지만 별 말 없이 임기를 마쳤다. 부단체장은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일선 시·군의 부군수는 4급, 부시장은 보통 3급 공무원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상의해 임명한다. 인구수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도 달라지는데 광양시의 경우 인구 15만 명을 넘기면서 2년 전부터는 부시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올랐다. 부단체장은 공무원들의 근무 평정·승진·전보 등 인사를 총괄한다. 각종

부단체장의 권한

받았다. 전남에선 모시청의 전·현직 부시장이 5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상조회로 부터 생일 선물로 소금 5돈짜리 황금거북을 받아 정제 요청을 받았지만 전남도는 관행을 이유로 불분 처리했다. 7월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관직의 꽃'이라는 부단체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8~9곳의 부단체장 자리가 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 못하는 것으로 찍혀서라도 나가야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부단체장도 선출직으로 돌려야 할 것인가.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